

권두언

김혜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장



푸름이 시작되는 이 좋은 계절에 전국에서 총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회원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하여 미사를 집전해주신 김중호신부님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을 위

하여 「사랑의 돌봄으로 - 삶과 사회의 변화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신 홍영선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중순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 학술대회가 이곳 서울 워커히에서 1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그 열기는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매우 돋보였습니다.

총회 시에 개인과 기관에 포상을 하였는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 의료원에 인보 호스피스를 펼쳐가기 위해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공로상을 받으시는 정진숙 수녀님, 기관 상을 받게 되는 의정부 성모병원 호스피스과와 천주교 청담성당 가정 호스피스 팀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년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채 금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가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와 노하우를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하기관들은 이번에는 말로 '우리 아닌 다른 기관이 하겠지' 라는 구경하는 식의 태도

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호스피스교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전 기관 대표자 모임에서 논의했던 호스피스 교육을 위한 책이 오랜시간 끝에 출간 되었습니다. 교육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협조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책임자들이 소임 이동시에 호스피스의 흐름 즉 호스피스회원 가입시 그 방법이나 기관회비가 왜 있는지를 서로 인수인계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해 봉사자의 날 행사는 10월21일에 모두가 협조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 기관대표자 모임을 중부권인 유성에서 가질 예정이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선진국의 호스피스 기관들을 견학할 수가 있었는데 견학시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제는 외국의 호스피스 기관을 쉽게 견학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꼭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어렵게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작은 것을 나누는 봉사의 마음이 호스피스의 마음을 키워간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회원 여러분과 호스피스를 위하여 애쓰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